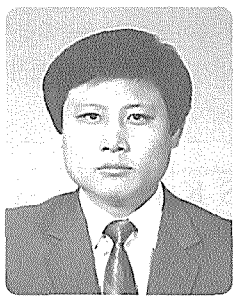
2002년 국내 석유산업의 현주소와 정유업계 당면과제



여 영 래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부 기자

현재 SK주식회사 LG칼텍스정유 인천정유 S-Oil 현대정유 등 정유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국내 석유시장은 제품수요의 감소세에 반하게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국이다.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석유수요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큰 폭(IMF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를 비롯한 석유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주유소수의 지속적인 증가 ▷석유수입사들에 의한 제품수입의 급증 ▷상표표시제의 사적계약 전환에 따른 이른바 복수폴사인의 등장 등 더욱 복잡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 7월부터는 대기환경오염 저감 및 소비자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석유제품의 선택권 부여를 위해 국내 정유사 및 석유수입사중 전 분기 수입실적이 일정규모(휘발유 5만배럴, 경유 15만배럴)이상인 업체가 생산 및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제품에 대해 황분(휘발유, 경유), 벤젠(휘발유) 함유량을 비교·분석해 일반에 공개하는 「자동차연료 품질공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어서 정유업계를 긴장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떠올라 있다.

1. 올 석유수요 7억5900만 배럴 예상

산자부가 내놓은 올해 국내석유수요는 하반기 경기활성화 예측에 따른 산업활동 증가 및 소비심리회복으로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7억5,900만배럴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는 산업, 수송, 공공부문은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가정상업, 발전, 가스제조부문은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골격. 산업부문은 하반기이후 설비투자 등 산업활동 증가로 전년대비 2.3% 증가한 3억610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수송부문은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소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3.9% 증가하고 가정상업무분은 난방유 수요가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1.1% 감소한 1억400만배럴 규모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종별로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 및 항공유 등 주로 수송용의 소비 증가세가 예상되는 반면, 등유 및 B-C유는 각각 2.1%, 0.4% 감소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2. 주유소수의 지속 증가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석유소비량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휘발유, 등·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산자부가 공식 집계한 2001년 12월말 현재 전국 주유소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광역시 2,780개, 기타 9개 도지역 7,953개 등 총 1만733개 주유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00년말 1만552개 보다 무려 181개 주유소가 새로 문을 열고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각 지역별 증가 추이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의 경우 전년의 2,785개에서 오히려 5개가 줄어든 반면, 경기 강원 충청 등 기타 9개 도지역은 2000년말 7,767개에서 7,953개로 186개가 늘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지역보다는 오히려 기타지역의 신규 주유소수의 증가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영업중인 주유소의 상표사용 현황을 보면 전체 1만733개중 96.04%인 1만309개(SK 3,835개, LG칼텍스정유 2,896개, S-Oil 1,434개, 현대정유 2,144개) 주유소가 여전히 정유사 4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24개는 무폴 또는 석유수입사의 상표를 내걸고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복수폴사인 사용이 허용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정유사(브랜드) 상표 사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석유수입사, 석유제품 수입 폭발적 증가

휘발유, 등·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의 수입물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석유유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자부 석유산업과가 집계·분석한 지난해 석유제품 수입동향에 의하면 36개 석유수입사들이 지난해 국내에 들여온 수입물량은 총 1,272만9,000배럴로 전년(2000년)의 602만9,000배럴 보다 무려 111.15%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석유제품 내수시장 점유율도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 등록을 필한 석유제품 수입사수는 지난 97년 수출입자유화 이후 매년 급증세를 보여 98년 4개사에서 2001년말 현재 36개사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이들 석유수입사들이 한데 모여 「석유수입사 협의회」를 발족시켜 앞으로 각종 정부규제 및 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해 이들 수입사들과 국내 정유사간 가격을 비롯한 유통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가능성을 높

게 하고 있다.

◇석유수입사 등록 현황: 산자부가 집계한 석유수출입 등록업체수는 지난해말 현재 총 36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정부의 국내 석유산업 자유화 · 개방화 시책의 일환으로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97년 당시 1개사에 불과했던 등록업체수는 ▷98년 4개사 ▷99년 11개사 ▷2000년 5개사 ▷2001년 15개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이중 실제 수입 · 판매실적이 있는(영업중인) 업체수는 17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나, 특히 이중에서도 연간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4개사(삼연석유판매, 타이거오일, 이지(EZ)석유, 페트로코리아)로 집중돼 이들 4개업체가 총 수입물량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석유수입사들도 규모화 · 외형 불리기 추세가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입실적: 지난 98년 이후 석유수입사들에 의한 제품수입물량은 98년 11만2,000배럴에서 99년 274만배럴, 2000년 602만9,000배럴 등의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2001년)에는 1,272만9,000배럴로 전년대비 무려 111.15%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국별로는 일본 53.6%, 대만 17.2%, 싱가폴 10.7%, 중국 8.5% 등으로 대부분 아시아지역에서 전체의 95.3%를 수입했으며 유종별로는 자동차용 경유가 52.2%를 차지, 전체 수입물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등유(22.6%), 휘발유(16.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시장 점유율: 이같은 수입물량의 큰 폭 증가로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 수입업체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1.7%로 전년보다 0.9%가 높아졌다. 특히 휘발유는 2000년 1.2%에서 3.3%로, 등유는 3.1%에서 4.7%로, 경유는 1.8%에서 5.0%로 각각 상승해 3개 유종 평균 2000년의 2.0%에서 4.5%로 급등했다.

4. 산업용 LNG 특소세 현행 유지

철강협회 · 대한상의 · 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7개 경제단체가 정부 및 국회에 낸 「산업용 LNG 특별소비세 면제」 건의사안에 대해 국회 재경위가 지난 2월 26일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세제개편의 골격상 형평성 문제를 들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LNG 특소세 폐지 문제는 '없었던 일' 로 결정지어 졌다.

철강협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는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특소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폐지를 재경부 및 국회 재경위 등에 건의하고 나섰으며 특히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취지의 특소세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해 왔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역시 "산업용 LNG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LPG, 경유, 벙커C유 등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에너지세제개편방안의 골격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산업용 LNG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마련한 에너지세제개편안은 중유와 LNG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LNG에 대한 세금은 고정시키고 중유에 대한 특소세는 단계적으로 ℓ 당 20원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었다.

한편 정유업계 및 석유협회는 이들 경제단체들의 LNG특소세 폐지 요청과 관련 올해 들어 국회 등에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건의서를 통해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세제를 변경한다면 세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민간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LNG에 대한 세금면제는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LPG(부탄), B-C유 및 경유의 소비자와 관련업계의 세금면제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5. 올 7월부터 휘발유 · 경유 품질 일반에 공개

올 7월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제품에 벤젠, 황분 함유량 등 품질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는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정유사와 석유수입사별로 연료품질을 비교 · 평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자동차연료 품질공개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나섬으로써 표면화됐다.

현재 연료품질기준은 휘발유가 9개 항목, 경유가 2개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우선 휘발유 중 황분 벤젠 등 2개 항목, 경유는 황분의 함유량을 비교, 분기별로 환경부 및 환경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것.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연료품질기준 비교〉

품질성분		미국 (캘리포니아)	스웨덴	EU	한국
휘발유	황분(ppm)	20	50	150	130
	벤 젠(%)	0.8	1.0	1.0	1.5
경 유	황분(ppm)	500	50	350	430

환경부는 공개대상업체의 경우 SK주식회사, LG-Caltex정유, 인천정유, S-Oil, 현대정유 등 5개 국내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중 전 분기 수입실적이 일정규모(휘발유 5만배럴, 경유 15만배럴)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방법은 각 성분별 품질 자료와 함께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품질이 가장 좋은 업체는 ☆표 5개, 가장 나쁜 업체는 ☆표 1개, 중간 업체들은 ☆표 2~4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황분과 벤젠함량을 우선 공개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들 물질이 다른 연료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방침은 정유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품질 비교치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해 환경친화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유사들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절묘(?)하게 자극하는 초강수의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나선 것으로 정유사들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제품 내수시장 하에서 불꽃튀는 판촉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 각 사별 품질등급이 매겨져 일반에 공개될 경우 파급 영향이 엄청난 파괴력을 띨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유사들은 자사가 보유, 운영중인 품질관리 전담팀을 비롯한 기술연구소 등 가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 환경부가 잣대로 설정한 환경친화 제품의 개발 · 생산 및 유통관리 대책 강구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유사들의 석유제품별 품질 고급화 경쟁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어 향후 각 정유사들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